

광주 코로나 33번째 확진자 후 추가 감염자 없어

접촉자 215명 중 126명 음성·21명 검사중·68명 검사 예정
PC방 전자출입명부제 도입, 뷔페음식점·학원 등 집합제한 조치
방역 당국 "국내 코로나 2~3월 1차 유행 후 현재 2차 유행 중"

대형마트, 학원 등 집합제한 조치
방역 당국 "국내 코로나 2~3월 1차 유행 후 현재 2차 유행 중"

광주에서 지난 20일 코로나19 33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PC방에 전자출입명부제를 도입하고, 뷔페음식점과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직업판매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내리기로 하는 등 방역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3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또 정부에서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된 뷔페음식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에 대해선 23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집합제한 조치 대상은 뷔페음식점의 경우 관내 대형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예상장내 뷔페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점 등 총 11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2-3월 1차 유행 후 현재 2차 유행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 스스로 자가방역과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판정(광주 33번째)을 받은 광주 북구 거주 20대 A씨와 접촉한 사람은 총 215명이다. 이중 147명을 검사해 126명이 음성 판정을 받으며, 나머지 21명은 검사중, 68명은 검사 예정이다.



선별진료소 찾은 시민들

22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는 33번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는 현재 검사에서 음성 또는 양성이나 오히려 더 된 검체반응이나 잠복기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자가격리가 끝나는 시점에 추가 검사를 진행한 뒤 격리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체 접촉자 중 A씨가 상당 시간 머물렀던 북구 일곡동 이안PC카페 내 접촉자는 193명으로, 이 중 132명은 소재를 파악해 자가격리 등을 통보했다.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28명을 찾기 위해 인터넷 접속기록 분석 등을 하고 있으며, 연락처 등이 불확실한 33명에 대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혹시 모를 집단 감염을 우려해 해당 PC방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등 39개교에 대해

대형마트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유행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바이러스가 여름철에도 코로나19는 전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을 통해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되면서 사람 간 밀접 접촉을 통해 끊임없이 전파가 일어나는 데다, 신종 감염병인 만큼 우리 국민이 이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되기 쉽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그 유행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병상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靑 “불탄 회고록, 사실 크게 왜곡”

“기본 원칙 위반 부적절 행동”

청와대가 존 불탄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회고록을 두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협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불탄 전 보좌관의 카운터파트였던 정외용 국가안보실장도 “정부 내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향후 협상의 신뢰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무엇보다 회고록 속에 담긴 내용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심각하게 폄하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불탄 전 보좌관은 지난해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 후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사진 찍기용'으로

북, 비무장지대 대남확성기 재설치 철거 2년만에...남측도 시설 복구할 듯

북한이 대표적인 대남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대규모 대남 비방 뼈라(전단) 살포 예고에 이어 확성기 방송을 통해 냉전 시대의 심리전으로 복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날 오후부터 북한이 최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재설치 작업을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비무장지대(DMZ) 북측지역 일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남측 최전방 군 부대도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철거해 보관 중인 대남확성기 장비를 점검 등으로, 상부 승인이 나면 즉각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확성기 재설치에 대해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확성기 방송 시설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철거됐다. 철거 2년여 만에 재설치 작업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DMZ 일대에서는 확성기 방송을 통한 비방과 선전 등의 활동이 집중될 전망이다.

북한의 확성기 방송 시설 재설치는 최근 북한군 총참모부가 군사행동을 예고한 이후 대남 전단을 대량 인쇄하는 등 대남

Table with 2 columns: Date (2018년, 2020년) and Details of DMZ radio station activities and removals.

연말뉴스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직행”

정부, 주증 지침 개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해 무증상·경증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등 관련 치료체계를 급중 중 개편한다.

신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이송하도록 급중 중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입원치료를 통해 증상이 없거나 경증에도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지원시설로, 지난 3월 초 대구에서 처음 도입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수도권 집단감염 여파로 환자가 급증하자 지난 16일 경기 광주 고용노동연수

원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마련한 데 이어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도 이 치료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윤 총괄반장은 "서울과 경기에서 현재 각각 1곳씩 운영하고 있고, 중수본에서 2 곳을 더 운영하게 되면 (수도권) 병상에 대한 부하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충청권에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할 단계는 아니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윤 총괄반장은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크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중단되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면서 "생활치료센터는 전문 의료진과 군·경찰 인력이 통제하는 시설이므로 매우 안전하고, (현재까지) 이 센터를 통해 감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심리전 강화 차원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2018년 5월 1일 최전방 지역 40여 곳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 남측도 최전방 40여 곳에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방송 시설을 같은 달 4일 철거한 바 있다.

당시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첫 이행사례로 꼽힌다. /*연합뉴스

광고: 풍수·사주 수감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일시: 2020. 6. 23(화) 오후 7시.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광고: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광고: 침술경력 50년. 침술을 한번만 맛으면 노후한 몸속 기관이 살아나 활기가 넘치고 젊어집니다. 고혈압, 당뇨병, 정력강화, 중풍애, 각종 암, 불치병 등. 단 한번의 치료로 모든 병을 고칩니다. 010-8491-2060

광고: 상속한정승인 공시최고. 상속한정승인 공시최고. 장학금 500만원(2020년 6월 23일). 장학금 500만원(2020년 6월 23일).

광주일보 광고판의 안내. 002-2297-6900. 先州日報 廣告판의 002-2297-6900.